

풀은 이런 식물들을 잘 배치해서 그 풍경을 한눈에 만
 곱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네. 분지 한가운데에는 높게 자라
 지 않는 풀들을 심었고, 다음으로는 관목들을, 그다음으로
 는 중간 키의 나무들을,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지 가장자리
 를 빙 둘러 키 큰 나무들을 심었지. 그렇게 해서 암벽 내
 부의 이 광활한 땅은 가운데서부터 보면 마치 초목과 과일
 과 꽃으로 지은 원형극장처럼 이루어져 있었고, 그 인쪽으
 로는 채소가 심어진 땅과 목초지가 형성된 변두리, 또 논
 밭과 밀밭이 어우러져 있었다네. 허나 풀이 자기 계획대로
 이 식물들을 다스렸다고 해서 자연의 계획까지 멀리한 것은
 아니었어. 자연이 가르쳐준 바에 따라 씨가 바람에 잘 날
 리는 식물은 높은 곳에, 씨앗이 물 위로 떠다니게끔 되어
 있는 식물은 물가에 심었지. 이렇게 해서 식물 하나하나가
 각자 자기에게 알맞은 터를 잡아 자랐고, 그 각각의 터는
 자기가 품은 식물에 힘입어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꾸며
 졌다네. 바위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물은 골짜기 안쪽 깊숙
 한 곳까지 흘러와, 이쪽으로는 샘과 못을 만들고, 저쪽으
 로는 커다란 물거울을 만들어, 초목 한가운데서 꽃이 만개
 한 나무들과 바위들과 쪽빛 하늘이 그 안에 비쳤지.

들쭉날쭉 아주 고르지 못한 이런 땅의 생김새에도 불구
 하고, 이 모든 작물들은 대부분 시야에 다 들어올 정도로
 손닿는 범위 안에 있었다네. 사실상 그 정도로 일을 마무
 리하는 데 있어 우리도 해줄 수 있는 모든 조인과 지원을